

NEWS

2025년 9월 1일 월요일

‘광주송정역세권 KTX투자선도지구’ 개발 본궤도

도, 적조 피해 최소화 대응
주요보 발령...대책본부 가동

전남도는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여수 기막만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적조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황토 살포 등 초동 방제와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적조 우심지역 정점 94개에 대한 일일 예찰과 함께 적조 명예감시원 242명의 수시 예찰을 실시해 예찰 결과는 어업인에게 신속 전파하고, 개인 방제장비 가동 등 양식장 관리요령 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3개 사업 317억원 지원 △산소공급기, 정화선 등 방제장비 9종 3318대 구축 △황토 6만 1000t 확보를 완료했다. 신속한 방제 작업을 위해 추가 예산을 건의해 국비 8억 원도 추가 확보했다.

특히 지난 6월 여수 남면 해상에서 민·관·경 100여명이 참여한 합동 적조·고수온 대응 모의훈련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해 실전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예비특보 발령 직후 여수에서는 가두리 밀집 해역 중심으로 방제 작업을 즉시 전개했으며, 방제선박과 살포장비 추가 투입으로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 축산농가 89개소
저탄소 축산물 인증 ‘최다’

전남도는 올해 축산농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에 힘입어 89개소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하며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다. 국가인증(유기축산·무항생제·HACCP 등)을 받은 축산농가가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과정에서 탄소 감축기술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일반농가 기준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하면 인증해준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전남에서는 올해 89개소가 추가돼 총 148농가로 전국 인증농가의 25%를 차지하며 최다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3단계(서류평가·현장평가·최종심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현규 기자 gnnews1@

LH 경영투자심사위 통과...총사업비 5943억 규모
특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 추진...지역경제 활성화

호남권 대표 관문인 광주송정역 일대를 지역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광주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31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광주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마치고 조건부 통과시켰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광주송정역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 한 이후 10여 년간 정체를 있던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광산구 송정동, 송촌동, 장록동 일원 55만8158㎡에 주거, 산업, 연구, 업무 등을 포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구도심 환경 정비로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광주송정역이 서남권 광역교통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 주변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5943억원 규모(용지비 4304억원·조성비 988억원·간접비 651억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성 보완 등 조건 사항 이행 이후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 광주송정역이 광주·전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낙후된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지역민의 바람을 담아 성공적으로 추진돼 광주송정역세권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ij4415@gwangnam.co.kr



김성환 환경부 장관, 신규팀 후보지 현장 점검·지역 의견 청취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 후보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조선시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 조명

임진왜란 ‘수군 활약상’ 학술대회서 역사문화자원 활용 모색

전남도는 29일 여수진남문예회관에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어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 여수종교회가 주관한 학술대회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수군의 활약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사학계 임란사 전문가, 지역연구자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임진왜란 때 나라의 운명은 전라좌수영 수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영선 전 전남도지사는 “전라좌수영 수군의 활약상은 임진왜란 시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인식해 전라좌수영 수군의 활약상을 학술대회에서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구소 소장의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장명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소장의 ‘임진왜란 시기 주요 해전과 홍양수군의 역할’ 등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선 한명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청중이 참여해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영록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는 역사 사실을 더욱 탄탄히 고증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전라좌수영 성 복원’과 ‘이순신 호국 문화관광벨트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지역 전통시장 건축물 규제 완화

강수훈 의원 ‘건축 조례 개정안’ 산업건설위 통과

광주 전통시장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법용도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위치한 건축물일 것,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변경된 용도가 주변 건축물의 용도와 조화를 이룰 것, 위반면적이 50㎡ 이하일 것,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감경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것 등이다.

강수훈 의원은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삶과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생활경제의 터전”이라며 “이번 개정은 상인들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성과로 광주시민들의 생활경제를 지키고, 전통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돕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본 회의 의결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정부, 2029년 아동수당 11세까지 확대

5년 청사진...K-패스 가입자 500만 달성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1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K-패스’ 가입자를 500만명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런 내용의 5년간 청사진을 담았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해마다 높여 2029년에 11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자는 총 49만7000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우대지역) 또는 2만원(특별지역)이 더 지급된다.

이후 2027년 9세, 2028년 10세, 2029년 11세 등으로 1세씩 높아진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명에서 내년 11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2029년에는 125만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제도도 정비된다. 정부는 K-패스 정액권과 어르신 유형 신설로 올해 246만명 수준인 K-패스 가입자를 2029년까지 50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성모 기자 sole235@gwangnam.co.kr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운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